



# 9, 10월의 해충(XV) (밤바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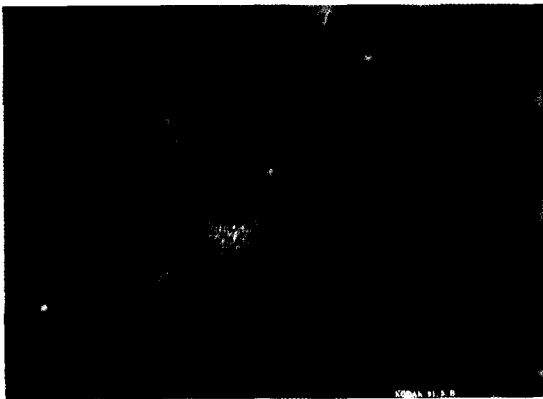
변 병 호 / 임업연구원 산림곤충과장

국내 재래종 밤나무는 1958년에 침입한 밤나무혹벌로 인하여 거의 전멸된후 이 해충에 내충성인 신품종을 도입하여 집단 조림하므로써 또다른 병해충의 대 발생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준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현재 밤바구미 복숭아명나방 밤나방등의 해충들이 발생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종실을 가해하는 밤바구미는 전국적으로 피해가 극히 심하여 방제를 하지않고는 품질이 좋은 밤을 수확할수 없게 되었다.

○가해상태 : 밤송이(毬果)에 성충이 산란을 하기위해 입으로 뚫어 놓은 구멍이 있고 그것 이외의 다른 피해 증상은 볼수없다. 피해를 심하게 받은 밤은 전혀 이용할수 없다. 성충이 종피와 과육사이에 알을 낳으므로 부화한 유충은 밤의 내피와 과육표면을 불규칙하게 사행(蛇行)하면서 먹으며 똥을 가해한 구멍에 쌓아놓고 과실 밖으로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가해초기에는 전혀 피해여부를 알수없다. 유충이 자라면서 과실내부

로 파고들어가 과육을 먹고 벌레똥을 쌓아놓아 이것이 부레하여 과피가 검게 변화된다. 노숙 유충은 과피를 뚫고 외부로 탈출하는데 이때에나 피해과임을 알수있다.

○형태 : 성충의 몸길이는 6~10mm이며 몸색같은 진한 갈색바탕에 담황백색의 짧은 털이 밀생되어 있다. 날개에는 크고 작은 담갈색 무늬가 있고 중앙에는 회황색의 횡대(橫帶)가 있다. 알은 타원형으로 장경이 15mm이고 유백색이다. 유충의 몸



밤바구미 성충



밤바구미 유충



밤바구미 피해과



밤바구미 방제를 위한 훈증처리

길이는 12mm이고 나용(裸踊)으로 회백색이며 토중에 있다.

○생활사 : 1년에 1회 발생한다. 피해과에서 탈출한 노숙유충이 땅속에 들어가 흙집(土窩)을 짓고 그 속에서 월동한다. 월동유충은 7월에 번데기가 되며 성충은 7월하순~10월까지 볼수 있다. 출현 최성기는 8월중순~9월중순이고 수명은 15~23일이다. 암컷의 성충은 길이 5mm가량되는 긴주둥이로 구

과에 구멍을 뚫은 다음 산란관을 넣어 종피와 과육사이에 1~2개의 알을 낳는다. 알기간은 12일 내외이고 부화한 유충은 과육표면을 불규칙하게 식해하다가 과육속으로 먹어 들어간다. 노숙유충은 9월하순부터 밖으로 탈출 땅속에서 월동한다.

○방제법 :- 성충출현 최성기인 8월중순부터 10일 간격으로 파프유제, 나크수화제를 2~3회 살포한다. (밤수확 20일전부

터 밤바구미가 살난하므로 조생종부터 약제를 살포한다.)

-밤을 수확한 즉시 두터운 포티에치렌포를 덮어 공기가 통하지 못하도록하고 그속에 인화늄정제(훈릉제)를 체적 1m<sup>3</sup>당 1~2개씩을 넣어 24시간 훈릉처리후 포를 제거한다. 이때 시간을 너무길게 훈릉처리하면 약해가 발생하므로 주의 해야한다.▲